

소외계층 대변... ‘흔들리지 않는다’

‘놀이패 신명’ 40주년 기념행사
30일 아시아문화전당 극장 2
광주·전남 문화운동 선구자 역
내달 1일부터 아카이브전 개최



작품 활동을 통해 광주 5·18의 참상을 전국에 알리는 등 광주·전남 지역 문화운동 선구자 역할을 해온 마당극 단체 ‘놀이패 신명’이 창단 4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갖는다.

신명은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 중심에서 활동한 극회 ‘광대’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1982년 창단됐다. 1988년에는 전국을 돌며 ‘일어서는 사람들’ 60여 회의 순회공연을 하며 5·18의 역사를 알리기도 했다.

매년 5월 17일 열리는 5·18 전야제의 전신도 신명이다. 신명은 지난 1989년 지역 문화단체와 함께 5월 전야제를 공동 실내체육관에서 기획·연출했다.

이후 1990년 전일빌딩 앞에서 드럼통과 베니어판으로 무대를 만들어 금남로에서 최초로 광주 5월 전야제를 열었고 이 행사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신명은 매년 마당극을 새롭게 창작하고 있으며 41회의 정기공연과 각종 마당극 창작활동을 통해 소외되고 차별당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신명이 선보인 대표작으로는 ‘돼지풀이’ (1982) ‘일어서는 사람들’



돼지풀이 공연장면

(1988) ‘아시아인의 마당’ (2005) ‘아시아 광대전’ (2006) ‘들불’ (2012) 등이 있다. 특히 마당극 ‘돼지풀이’는 신명의 전신인 극회 ‘광대’가 창작한 작품으로, 신명이 1982년 국립극장에서 재현했다.

신명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오는 30일 오후 5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 2에서 ‘불혹:흔들리지 않는다’는 주제로 기념행사를 펼친다. ‘신명 비나리’ 주제 공연과 지역문화예술계의 축하·축하공연, 감사패 증정 등이 진행된다.

행사 1부에서는 기념식과 감사패 증정 이후 신명 40년의 역사가 담긴 영상을 상영하고 총책극 ‘신명 비나리’를 통해 신명 40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주제공연을 펼친다.

‘신명 비나리’는 신명의 첫 창단 공연극이자 보성을 중심으로 의병활동을 했던 안규홍의 삶을 조명한 ‘안담살이’부터 현재의 공연에 이르

기까지 온니버스 형식으로 풀어간다.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광주 동구 오월미술관에서 ‘신명 40년 기억으로 살아가는 아카이브전’을 연다. 이를 통해 신명의 과거와 희망적인 미래를 조망해 볼 수 있다. 전시기간 매주 토요일 5시에는 신명 후원회원 초청 이야기 마당극이 열린다.

신명은 광주문화운동과 함께 지역을 지켜온 만큼 추진위원들을 구성해 40주년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시민 누구나 추진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정찬일 놀이패 신명 대표는 “창단 이후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마당극 창작과 공연을 중심으로 열심히 활동했다”며 “40주년 기념행사는 신명이 앞으로 지역문화예술의 변화와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기악대회 대통령상, 광주시 관심 절실”

전통문화연구회 황승옥 이사장
빛고을 기악대제전 10월 개최



황승옥

“대한민국의 기악을 지켜내기 위해 이끌어온 기악대회에 올해부터 대통령상이 생겨 매우 뜻깊지만, 이를 꾸준히 지켜내기 위해서는 광주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절실합니다.”

(새한국전통문화연구회 황승옥 이사장(61)은 지난 2001년부터 21년째 ‘대한민국 빛고을 기악대제전’을 이끌어오고 있다. ‘대한민국 빛고을 기악대제전’은 관악과 현악 가야금 산조의 우수 인재를 배출하고 전통예술 기악의 뿌리를 견고히 하기 위해 초·중·고, 대학생, 일반인과 명인 등을 대상으로 매년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빛고을 기악대제전은 기악과, 가야금병창 전공자에게는 대응문과 같은 대회로 성장했다. 명맥을 유지하기까지는 남모를 속사정이 있다.

황 이사장은 “광주는 예향 민속학의 고장이자 기악의 산조 창시자를 무수히 배출한 지역이어서 아시아 중심도시라고 불린다”며 “하지만 전공자들의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회가 없다는 점이 아쉬워 광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통을 잇고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에 법인인 (사)한국전통문화연구회를 설립하고 기악대회를 치르며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시에서 지원받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공연 수익금 등 개인 돈을 더해 대회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한 해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최소 5,5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광주시 지원 예산이라고는 1,000만 원이 전부다. 때문에 대회 폐지를 고민했던 적도 있었다고 한다.

황 이사장은 “대회 초반에 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점차 지원 예산이 줄었고 최근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돼 상황은 나아졌다”며 “하지만, 홀로 소비해야 할 예산이 많다 보니 고비가 올 때마다 대회를 이어가기 버겁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기악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다”고 설명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황 이사장은 대회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고집하면서 올해 행사부터 대통령상도 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황 이사장은 다음 해부터 대통령상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광주시의 지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8월 27일부터 진행할 행사도 10월 2일로 미뤄진 상태다.

황 이사장은 “오랜 노력 끝에 20년 만에 대회에 대통령상이 생기게 됐지만 광주시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문화체육부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내년부터 대통령상훈이 사라질 수도 있다”며 “호남지역의 산조문화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도 광주시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이사장은 대통령 상훈이 생기게 된 만큼 대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유네스코 등재에도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황 이사장은 “대회의 공정을 위해 전문심사위원을 별개로 시민 참여단도 뽑는 등 인재들이 더 큰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대회로 확대하겠다”면서 “기악의 변천과정에 대한 책을 집필하는 등 꾸준한 연구를 거쳐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광주문화재단, 내일 문화장터 ‘누리랑게’ 오픈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27일 남구 월산 5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문화누리카드 이용이 어려운 계층(노인·장애인 등 거동이 어려운 문화누리카드 발급자)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장터 ‘누리랑게’를 연다.

이번 문화장터는 문화·체육 관련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10여 곳이 참여해 다양한 문화상품을 판매한다.

찾아가는 문화장터는 가맹점이 직접 거주 지역을 찾아가 문화누리카드로 구매 가능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사다. 운동용품, 공예품, 가족용품, 효도 라디오, 접시·도자기 등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문화장터에서는 판매 당일 문화누리카드 결

제자에게 선착순으로 소정의 사은품도 증정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개인위생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행사를 진행한다. 또 문화누리카드 결제 이벤트 ‘행운의 7월, 쿨하게 쏜다!’ 접수도 현장에서 1대1로 진행해 카드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체육·관광 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카드(1인당 연간 10만 원)로 등록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문화장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누리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나라 기자



광주학생관현악단 ‘광주 여수 교류음악회’

30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광주시교육청 학생관현악단(이하 광주학생관현악단)이 오는 30일 오후 4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제1회 광주 여수 교류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제1회 광주 여수 청소년 교류음악회로 여수교육지원청 영재오케스트라(이하 여수영재오케스트라)를 초청해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진행된다. 지역 간 청소년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광주학생관현악단과 여수영재오케스트라가 함께 멋진 하모니를 선보인다.

광주학생관현악단의 하반기 연주회로는 ‘8월 영호남 청소년 교류음악회’ 개최가 계획돼 있다.

이번 공연과 광주학생관현악단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과 문화공연팀(062-380-88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환준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 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98 (사동)
 기사 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1000@hanmail.net